

검붉은 건반의 정열, 코로기Korogi

글_이상진

제17회 임방울 국악제 최우수상
영화 '쌍화점' 타악감독
전 서울예술대학 외래교수 역임
전 뮤지컬 퍼포먼스 '난타' 지도감독
현 타악기 전문업체 SPM에스피엠 재직중
<http://www.spmi.co.kr>



전통민속에서 현대대중으로 파고드는 마림바

아프리카에서 서구 각지로 넓혀나간 마림바는 이제 다시 서구의 문명을 지나 전 세계로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기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음악의 각 분야에 거침없이 녹아들어 솟구치고 꿈틀댄다. 게다가 마림바의 소리는 마치 공작새의 우아함같다. 내려잡은 커튼처럼 도도한 아치모양의 공명관을 타고 올라가면 오작교 징검다리처럼 정열적인 장미나무의 붉은 건반이 가지런하다.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악기 마림바, 가히 건반악기의 공룡이다. 마림바가 공룡 중에서도 으뜸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위용을 자랑한다면 자일로폰과 글로켄슈피엘은 아기공룡 둘리마냥 아담하고 친근하다. 오래된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는 이런 고고학적 가치의 건반악기는 이제 우리 곁에

서 현대적 감성을 곁들여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현대적 디자인과 실용성을 지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마림바의 모습은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여러 장인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금속재질의 공명관과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나무건반,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프레임은 현대적 디자인과 실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격과 대응하는 기막힌 만족감을 심어주기 위한 치열하고도 정정당당한 경쟁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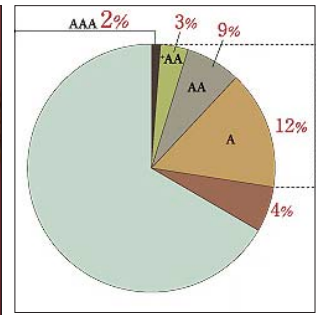


마림바의 제조사, 코로기

전 지구적으로 무수한 경쟁 속에서도 독특한 음색과 비범한 음악적 경험을 과시하고 나선 건반악기 제조사가 있으니 이름하여 코로기다. 코로기는 일본어로 귀뚜라미를 뜻한다. 일본음악 근대사의 반세기, 코로기는 귀뚜라미의 울음처럼 당찬 열망을 담아 건반악기 제작에 몰두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기의 설립은 1949년에 일본의 소학교에 납품을 목적으로 양중
맞은 선반용 자일로폰을 만들어 주면서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디
자인과 제조기술에 자신이 있었으나,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이 더
해집에 따라 건반악기의 전통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브랜
드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그 후, 악기의 모양을 다양화하는 전략
을 수립하고 가격을 고려한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연주
자의 취향과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건반, 식욕을 돋우는 소리



AAA등급의 코로기마림바 건반

AAA최고등급. AA+고급. 한우 소고기의 육질을 판가름하는 부위
별 등급이 아니다. 마림바의 소리를 좌우하는 건반의 등급이다.
잠시 입가에 군침이 돌았다. 얼마나 맛있는 소리가 난단 말인가.
수도꼭지의 물맛과 이끼향이 묻어나는 청정한 우물의 맛이 상대
가 안 되듯, 코로기 마림바는 오래된 숙성의 소리가 감칠맛과 달
콤한 향기를 더해, 듣는 이로 하여금 지극히 눈감을 수 있도록 만
들어 준다.

코로기의 마림바 건반에 사용되는 장미나무는 뜨겁고 바삭한 햇
살을 받아 남미의 정열을 품에 안고 건강하게 자라준 과테말라를
원산지로 한다. 100개의 나무원료에서 한 개꼴의 최고급 재질 장
미나무가 바로 AAA등급이다. 그 다음 좋은 재질은 AA+
다. 그림에서 보듯이 장미나무 원통 하나에서 A등급의
재질은 약 33%에 불과하며 그 중 AAA와 AA+는 2%에 조
금 못 미친다.

코로기 마림바 SP3000CC의 제원 諸元



라미네이트 코팅처리를 하여 습기로 인한 곰팡이뿐 아
니라 거의 모든 환경에 완벽한 내구성을 지니도록 했다.
누구나 손쉽게 일체의 장비없이 건반의 높이를 15cm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명관과 건반받침대사이에 크로스바를 고정하도록 해서
휘는 현상을 방지하고 연주하는 동안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배제시킨다. 이는 5옥타브 이상 충분히 긴
길이의 마림바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다.



빠르고 쉽고 편리한 프레임 버팀목이다. 너트나 나사
가 없이 설치하도록 하는 센스가 돋보인다.



자연에서 천천히 나이를 먹은 장미나무중 최고등급
AAA와 AA+는 엄격한 분류과정을 통해 선별된다.



건반과 공명관사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코로
기에서 독자적으로 발명한 높이조절 버튼을 통해 공
명의 크기를 연주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 프레임에 가로지르는 공명관은 그 무게가 상당
하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공명관이 처지지 않도록 U
자형 버팀목을 설치했다.

느긋하고 편안한, 소리를 위한 참을성



마림바 음판을 이루는 장미나무는 확실히 성장한 것만 골라서 사들인다. 그 후 깨끗한 판의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절삭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 이 때 수평을 유지하는 이유는 풍부한 소리의 여운과 솔직한 소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정성을 다해 제재를 한 후, 습도가 잘 관리되는 전용 창고에서 몇년간 자연에 건조시킨다. 그렇게 숙성되고 마른 판을 자르고 다시 인공적 건조를 실시한 후, 성형을 담당하는 전용 기계로 구멍을 내고 건반이 되도록 뒷부분을 아치형으로 깎아 낸다. 모양이 완성된 건반은 장인의 손에 의해 일일이 소리상태를 점검받는다. 건반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포함해서 이 공정은 소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장 섬세한 분별과정이므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나무건반의 전체를 도장한 후 다시 소리의 검사를 해 완료한다. 코로기는 장미나무의 진가를 깊게 이해하고 길러내는 중요함을 알고 있는 것이다.

코로기의 음색은 강렬한 따뜻함



건반의 조직과 밀도 검수과정

가장 엄선된 재료를 선택하는 코로기 악기의 집중력은 모든 자일로폰과 마림바의 건반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색채가 주는 품질의 안정성과 촘촘한 조직, 그리고 고밀도에 의한 지탱능력을 검사하여 코로기 공장안에서 전문 연주가에 의해 검수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건반은 공명관위에 올라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코로기의 악기장들이 언제나 동일하면서도 최고급 품질의 건반악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동안 구슬같은 땀을 흘려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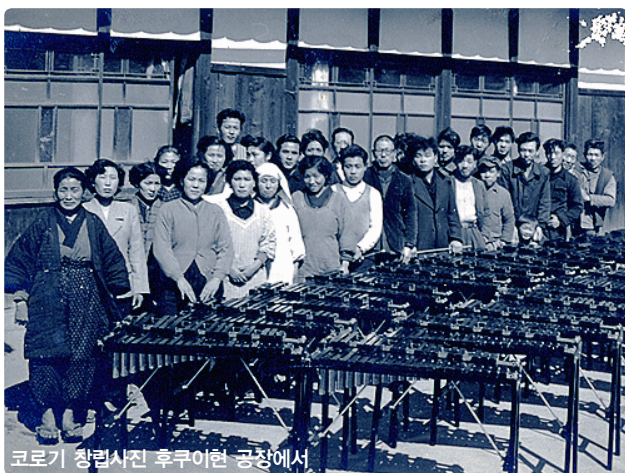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코로기가 건반악기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방만한 악기종류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건반악기의 완성도에 주력해온 고집에 있다. 장인의 손으로 직접 테스트하여 걸러지는 건반의 섬세한 제작공정은 하루나 이틀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프레임과 공명관을 만드는 원료의 작은 비율도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분류과정의 우수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예술철학을 버리지 않은 것은 메모해가며 배울만한 미덕이다. 그리하여 만들어 낸 코로기의 음색은 강렬한 따뜻함이다. 악기는 소리를 내지만 눈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과 경제성의 관계를 씨줄로 본다면 눈과 귀의 관계



는 날줄의 관계다.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한판 코로기 악기의 자수가 탄생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 부러움에 눈을 흘기지만, 한국도 지구적 수준의 서양클래식 건반타악기 연주자들을 속속 배출해 내고 있는 현실에 박자를 맞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악기제조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해 본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기 마림바는 독점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타악기 전문회사 SPM에스피엠을 통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다. 건반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음색을 꿈꾸는 연주자 및 지망생들은 더 좋은 악기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그로인해 음악적 감수성을 더욱 발휘하게 되길 기대한다.

코로기 회사 연보



- 1949년** 후쿠이현에서 사이토 후지고로를 대표로 해 친족 3명으로 교육용 탁상 목금의 제작을 시작한다.
- 1953년** 자본금 600만원으로 주식회사 코로기(귀뚜라미사)를 설립
- 1973년** 판매강화를 위해 도쿄에 코로기(귀뚜라미사) 설립
- 1974년**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에 수출 개시
- 1975년** 프로 연주가 전용의 본격적 마림바 개발에 착수
- 1979년** 커스텀 뮤직과 북아메리카 지구의 판매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 KORI브랜드로 판매 개시
- 1982년** 프시천 · 퍼쿠션 · 프로덕트(네덜란드PPP)와 서구 전역의 판매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
현재 주류의 양산형 헬름호르트 공명관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
- 1991년** 대만HAOSHENG-MUSIC과 판매 계약을 체결
- 2005년** 도장 로봇 도입 · 설비의 고도화를 추진
- 2006년** 한국 SPM에스피엠(옛 서울타악기)과 거래계약 체결
오스트레일리아JUST-PERCUSSION과 거래 개시
PERCUSSION-SOURCE와 북미 지구 판매 총대리점 계약 체결